

국내 외동아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정 순 화¹⁾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국내 외동아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후 외동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1년 9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12편을 대상으로 연구발표현황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외동아관련 논문의 발표건수는 2000년대에 들어와 상당히 증가하였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연구유형은 질문지법을 이용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자기응답뿐 아니라 타인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많았다. 주요 자료분석방법은 집단평균비교방법과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셋째, 연구내용은 외동아와 형제아집단간의 비교나 외동여부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관련변인별로는 개인내 변인, 개인간 변인, 개인외 변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결과에서는 외동아와 형제아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가장 많았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개인간 변인에서만 외동아의 부정적 발달 특성을 강조하는 연구결과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지금까지의 외동아연구가 주로 결핍모델과 자원회석모델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보다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외동아, 연구동향, 학술지논문, 결핍모델, 자원회석모델

1)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문교수 (E-mail : eagles@korea.ac.kr)

I. 서 론

전세계적으로 한자녀 가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한자녀 가족의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라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자녀양육 비용과 노력의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개인적 측면에서는 외동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다수 제시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동아 출산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동아 관련 발달이론과 국내의 외동아 관련연구를 고찰해보고, 이에 근거하여 외동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방향제시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동아에 대한 시각은 형제경험유무와 그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상반되는 관점이 양립하고 있다. 그 가운데 형제경험의 결핍과 그로 인한 부모자녀관계가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Adler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론에서는 개인의 성격발달에서 남근기에서의 부모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형제의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그러나 Adler(1928)는 개인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가운데 가족요인만큼 중요한 요인은 없으며, 가족요인 가운데서도 가족구도(family constellation)와 형제서열, 가족분위기를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Adler는 출생순위를 중심으로 성격특성을 설명하면서, 외동아

는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해 응석받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외동아는 대부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성인과 의 관계가 중심이 되므로 이들은 만이의 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만이보다 더 큰 압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외동아들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쉽게 열등감을 느끼며,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또래집단에 비해 조숙한 반면 타인에게 많이 의지하고 신경증이 생기기 쉽다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Adler는 한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생물학적 출생순위가 아니라 가족구조 내에서의 심리적 위치, 즉, 태어난 가족구조에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만이가 심한 정신지체인 경우 둘째아이는 심리적으로는 만이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둘째 아이의 심리적 출생순위는 만이라고 볼 수 있다(Campbell, White, & Stewart, 1991; Shulman & Mosak, 1977).

대상관계이론가들도 발달에서 형제자매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lein(1932)은 형제자매는 개인의 정서발달과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도와준다고 하였다. Klein은 외동아라 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해 시기심어린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형제간에는 경쟁심과 질투뿐 아니라 사랑도 존재하는데, Klein은 이러한 형제애를 오이디푸스 갈등으로 인한 증오심의 균형을 잡아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Winnicott(1957)도 외동아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시각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

나, 외동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불이익이 이점을 능가한다고 하였다. 그는 외동아의 경우 어머니가 한 명의 자녀만 돌보면 된다는 이점은 있으나 형제자매가 없음으로 인해 놀이친구나 창의적 놀이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으로 간주하였다. 외동아는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으므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며, 부모로부터 독립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의 시각에 간혀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치료(Family therapy)적 관점에서도 발달에서 형제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족치료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국한시켰던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달리 가족환경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가족관계의 기능적인 역동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을 발전시킨 Minuchin(1974)은 가족은 하나의 구조를 이루며, 그 속에는 부부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 형제 하위체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형제 하위체계는 아동이 함께 어울리고 경쟁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형제 하위체계가 없는 외동아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형제자매의 중요한 기능으로 동일시와 분화의 기능을 들 수 있다. 즉, 형제자매와의 동일시를 통해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분화가 촉진되며, 형제자매는 부모와의 동일시를 능가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가 없는 외동아의 경우 동일시과정을 통해 자신을 볼 수 있는 경험이나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다(Bank & Kahn,

1975; Neubauer, 1982, 1983).

또한 Feldman(1981)은 외동아가 경험하는 부모와의 분리문제를 가족로맨스(family romance)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가족로맨스는 갈등이 심한 부부가 자녀를 끌어들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할 때 나타나는 연합(Minuchin, 1974)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자녀가 외동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모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입할 때 나타난다. 가족로맨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외동아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과 부모로부터 분리의 부족은 외동아의 발달에 위협이 된다. 성인 외동을 대상으로 분리와 개별화과정을 연구한 Byrd와 동료들(Byrd, De Rosa, & Craig, 1993)도 말이는 외동보다 더 독립적인데, 이는 형제자매가 태어나면서 말이는 더 이상 외동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형제자매관계로 인한 좌절과 갈등의 경험은 오히려 가족체계 전반에 안정감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이론들은 각기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외동아에 대한 부정적 발달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외동 경험으로 인한 발달문제를 설명하는 결핍모델(Confluence Model)(Zajonc & Markus, 1975)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형제경험의 결핍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Sulloway(1996)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형제의 영향을 설명하였다. Sulloway는 “born to rebel”의 개념을 토대로 수많은 종에서 나타나는 진화론적 경향과 유사하게 인간의 아기도 차별화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

모를 대상으로 경쟁을 함으로써 자신의 적소(niche)를 찾게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가족 내에서 함께 자라는 형제자매 간의 차이가 가족 이외의 타인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형제자매 상호간의 차이가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형제자매간에 나타나는 성격차이는 바로 형제자매간 경쟁심의 표현이자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Blake(1981)와 Downey(2001)에 의해 발전된 자원희석모델(Resource Dilution Model)의 관점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자원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이러한 자원은 분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지위가 확립된 첫째아는 책임감있고 경쟁적이며 전통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차자들은 자신을 협동적이고 사교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으로 차별화시키게 된다. 이들은 과학자가 되더라도 다윈의 진화이론이나 정신분석이론과 같이 비전형적인 사고방식으로 과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Jefferson, Herbst, & McCrae, 1998). 특히, 외동아는 부모의 자원은 독차지하지만 사회적 훈련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아보다 덜 외향적이며, 오히려 부모와 더 많은 갈등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Sulloway도 Adler와 유사하게 어디까지나 생물학적 출생순위가 아닌 기능적 출생순위(functional birth order)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형제자매가 있다하더라도 조부모 손에서 홀로 양육된 아이는 기능적으로는 외동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Barrett와 그 동료들(Barrett, Dunbar, & Lycett, 2002)도 아동은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형제간에 경쟁을 하게 되고, 순위형제와 자신을 차별화하며, 이러한 차이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적소를 찾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동아들은 이미 부모의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고 비교의 대상도 없으므로 굳이 자신을 다른 형제와 차별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며, 그 결과 첫째 자녀보다 차별화전략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발달상의 차이가 단순히 출생순위나 형제경험의 결핍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Falbo와 Polit(1986)의 외동아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외동아는 사회적 유능성의 차원에서 형제아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형제유무보다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생물학적 출생순위보다 심리적 출생순위를 강조했던 Adler의 관점이나 기능적 출생순위를 강조했던 Sulloway의 관점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형제아에 비해 외동아의 불안정애착 비율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외동아의 부정적인 발달특성이 형제유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Growth(2001)는 모든 정체감의 형성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상호성은 정체감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아가며, 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형제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라면 형제가 없는 것은 덜 영향을

미치지만 불안장애착을 형성한 경우이거나 밀착된 경우 형제경험의 부재는 발달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부모자녀관계모델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즉, 외동아가 부모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부정적인 속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충분한 관심으로 인해 높은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인 속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Falbo & Cooper, 1980).

그러나 이처럼 외동아의 긍정적, 부정적 속성을 논하기보다는 외동아는 폐위(dethrone)당하는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는 막내와 유사하지만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만이와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는 외동아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독자성모델에서는 외동아는 자기중심성과 같은 부정적 발달특성과 동시에 긍정적 특성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Rosenberg와 Hyde(1993)는 외동아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동아들 중에도 형제자매의 부재로 인한 박탈감을 극복하고 잘 적응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독자성모델에서는 형제경험의 결핍으로 인한 부정적 속성과 긍정적 속성뿐 아니라 독자적인 특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이후의 외동아관련 연구문헌들(Joby, 1998; Pitkeathley & Emerson, 1994; Sorensen, 2006, 2008)에서도 외동아 경험의 부정적 속성이나 긍정적 속성을 보고함과 동시에 외동아 경험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분명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

다. 외동아 경험의 이러한 독자적 특성은 질적 연구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외동아의 주관적 경험을 다룬 Roberts와 White-Blanton(2001)의 연구에서 연구대상 외동아들은 형제자매가 없는 것이 관계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대부분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에 대해 부담감을 느낌과 동시에 부모와 보다 깊은 유대감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동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질적 연구(유구중, 조희정, 2010)에서도 이와 같은 외동아의 독자적 특성을 보고하였다.

외동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로 하여금 외동자녀를 응석받이로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다 엄격한 양육방식을 적용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와는 상반되게 존재하는 차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혹은 외동아의 독자적 속성이나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함으로써 외동아의 발달과 양육을 위한 방향설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동아관련 국내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외동아연구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볼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동아관련 국내연구의 발표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외동아관련 국내연구의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셋째, 외동아관련 국내연구의 연구내용은 어떠한가?

넷째, 외동아관련 국내연구의 연구결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1년 9월 현재까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외동아관련 연구논문 112편이다. 이들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도서관의 학술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11년 7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집되었다. 국내학술지논문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검색항목에서 ‘외동(외동아/외동이)’ ‘형제유무’ ‘한자녀’ ‘출생순위’ ‘형제관계’가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871편의 논문이, 국회도서관에서는 125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 가운데 일차적으로 논문제목을 바탕으로 외동아와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그 가운데 중복되는 논문과 포스터 발표 논문, 외동아 실태조사 논문, 출생순위구분에서 외동아가 포함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2편의 논문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¹⁾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외동(외동아)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76편이 검색되었고, 형제유무 67편, 출생순위 188편, 한자녀 4편, 형제관계 536편이 검색되었다. 국회도서관의 연속간행물과 학술기사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외동(외동아) 19편, 형제유무 7편,

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외동아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논문의 연구발표(발표시기, 발표학술지의 등급)현황과 연구방법(연구유형, 연구대상, 정보제공자, 자료분석방법),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발표의 분석기준

먼저 연구발표는 발표시기와 발표학술지의 등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발표시기별로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발표학술지의 등급별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타 학술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의 분석기준

연구방법은 연구유형과 연구대상, 정보제공자 및 자료분석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유형별로는 조사연구(질문지법, 면접법), 관찰연구, 실험연구와 문헌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연구의 접근법으로는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별로는 연구대상의 수와 발달단계 및 특성, 정보제공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자료분석방법에서는 사용된 통계분석방

출생순위 38편, 한자녀 10편, 형제관계 51편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논문이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도 중복되어 검색되거나 혹은 외동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법을 살펴보았다.

연구내용의 분석기준

연구내용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먼저 양적 자료의 분석에서는 외동아 연구를 통해 주로 파악하고자 했던 관련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들이 외동아와 형제아의 발달특성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일차적으로 관련변인의 특성을 논문발표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이들 변인의 분류는 외동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인 개인 내 측면(intra-personal voice), 개인간 측면(inter-personal voice) 그리고 개인외 측면(extra-personal voice)의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Sorensen, 2008). 다음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이 포함된 연구를 대상으로 그 종류를 살펴보았다.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주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의 분석기준

연구결과의 분석에서 양적 자료는 외동아와

형제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또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외동아와 형제아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로 구분하고, 이러한 차이를 관련변인의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질적 자료 가운데 외동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형제아와 구분되는 외동아 경험의 독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외동아와 형제아가 포함된 연구는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외동아관련 연구발표의 전반적 경향

외동아관련 연구를 발표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외동아관련 연구는 2011년 9월 현재까지 총 112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되었는데,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표 1. 연구발표의 시기별 분포

시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년도	70	75	76	77	78	82	84	86	87	89	90	92	93	94	95	97	98	99	
빈도	1	1	2	1	1	2	1	1	1	2	2	1	4	5	3	4	2	4	
계	6					7					25								

시기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빈도	1	3	6	2	7	11	5	4	4	14	13	4	112	
계	57										17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의 등급을 살펴보면, 총 112편의 논문 가운데 65편은 학술연구재단 등재지에, 8편은 등재후보지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39편은 그 외의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2. 외동아관련 연구방법의 전반적 경향

연구유형

외동아관련 연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질문지법을 사용한 연구가 89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문헌연구가 12편, 관찰연구 2편, 면접연구 3편,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유형(면접, 관찰, 질문지, 문헌)을 병행한 연구가 6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의 접근법에서는 1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횡단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로 나타났다. 문헌

고찰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100편의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대상과 자료분석방법, 정보제공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수. 연구대상의 수는 최대 2,283명에서 최소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동아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외동아집단과 형제아집단간의 비교연구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가 13편, 100~200명이 19편, 200~300명이 16편, 300~400명이 12편, 400~500명이 15편, 500~1,000명이 15편으로 나타났고, 1,000명을 넘는 경우도 10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발달단계.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동아관련 연구는 유아를

표 2.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 분포

발달단계	시기구분				소계	합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유아기	3세 이하		1	2	3	40
	3-6세	2	6	28	37	
아동기	초등 1-3학년		2	1	3	30
	초등 4-6학년	2	2	3	12	
	초등학생 전체		2	5	8	
청년기	중학생	1	1	1	5	15
	고등학생			1	2	
	대학생			1	3	
성인기	성인			1	4	5
기타	1		3	6	10	10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40편 가운데 3편만이 3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대부분이 3~6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다음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30편의 연구 가운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8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편에 불과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편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하는 논문에는 1~5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편, 유아와 초등학생, 초등학생과 중학생, 유아와 초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각각 2편씩, 초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각각 1편씩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특성. 100편의 연구 가운데 외동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5편의 연구는 외동아와 형제아 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폐아와 정신지체아,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집단, 아동양육시설생활

아동과 같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각각 1편씩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

문헌연구를 제외한 100편의 연구논문 중에서 3편의 연구는 관찰과 면접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만을 제시하였다. 이를 제외한 97편의 연구에서 외동관련변인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분석방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동아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외동아와 형제아의 발달특성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주요 자료분석방법도 집단평균을 비교하는 연구가 55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외동아 여부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본 연구가 36편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만을 살펴본 연구가 2편,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1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도와 평균 등의 기술통계방법만을 사용한 연구도 3편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자

외동아관련 연구의 정보제공자를 발달단계 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단일응답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77편, 복

표 3. 시기별 외동아관련 연구의 주요 자료분석방법

분석방법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합계
빈도, 평균	1	2			3
집단평균비교	3	3	17	30	55
상관관계			1	1	2
회귀분석			6	30	36
구조방정식				1	1

표 4. 정보제공자의 발달단계별 분포

정보제공자	발달단계구분					소계	합계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기타		
단일 응답자	연구대상	3	19	19	4	5	50
	부모(어머니)	12	1				13
	교사	4	1				5
	연구자(관찰자, 치료자)	5				3	8
	기타				1		1
복수 응답자	연구대상+교사, 치료자, 부모(어머니)	5	3			2	10
	교사+관찰자, 어머니	10	1			2	13
							23

수응답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23편으로 나타났다. 단일응답자 가운데 정보제공자가 연구대상 본인인 연구가 50편, 부모(어머니) 13편, 연구자(관찰자, 치료자) 8편, 교사 5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 본인이 응답자인 50편 가운데 42편이 초등학교 이상이 연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응답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연구는 3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모두 타인응답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23편의 논문 가운데 연구대상 자신과 타인응답자(교사, 치료자, 부모)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10편, 연구대상 자신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타인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13편으로 나타났다.

3. 외동아관련 연구내용의 전반적 경향

외동아관련 연구내용의 전반적인 경향을 양적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헌연구를 제

외한 외동아관련 연구 100편 가운데 95편의 연구는 외동여부(형제유무, 형제수, 출생순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외동아와 형제아집단간 발달특성 등의 비교나 외동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을 Sorensen(2008)의 기준을 토대로 발표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동아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주요변인은 개인내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간 변인, 개인외 변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내 변인은 개인의 발달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신체발달, 인지발달, 정서발달, 자아개념, 성격특성과 적응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정서발달과 인지발달, 적응능력 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신체발달, 자아개념,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발달 관련변인에는 운동능력과 틱장애, 정신장애 및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의 등과 같은 발달장애, 정신건강 등이 포함된다. 인지발달 관련연구들

은 지능, 학업성취, 언어발달, 창의성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정서발달 관련 연구들은 자기조절능력, 자기관리능력, 외로움, 걱정, 불안 등의 정서, 스트레스 수준, 기분,

정서장애, 마음이해와 마음표현능력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아개념 관련 연구들은 자기애,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적응능력 관련

표 5. 발표시기별 외동아관련 연구의 주요변인(중복측정)

구분	변인명	시기 구분				소계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개인내 변인	신체 발달	운동능력				1
		1	1	2	1	7
		정신건강				1
	인지 발달	지능, 인지능력, 다중지능		1	2	2
		학업성취, 학업유능감				3
		구어발달, 문해발달, 언어발달				4
		창의성		1	1	
	정서 발달	정서(외로움, 걱정, 기분, 불안), 스트레스 수준		2	5	
		정서적 능력, 정서장애		1	3	16
		자기조절, 자기관리능력				3
		마음이해, 마음표현				2
	자아 개념	자기애				1
		자아정체감		1		8
		1		2	3	
	성격 특성	기질, 행동억제		1	1	
		2	1		1	6
	적응 능력	사회·심리적 적응				3
		일과적응, 학교적응		1	1	
		가족적응성				1
		스트레스 대처행동				1
		문제행동, 비행, 폭력		2	2	
		도덕성, 효행동, 예절의식		1	1	
	기타	모취업에 대한 태도, 진로타협, 성선택, 성역할		4	1	5
	소계	4	3	20	42	69

표 5. 발표시기별 외동아관련 연구의 주요변인(중복측정)

(계속)

구분	변인명	시기 구분				소계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개인간 변인	사회성 발달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능력		2	6	12	27	
		친사회성			1	2		
		대인관계성향, 갈등해결전략				2		
		리더십				2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상호작용, 의사소통				2	9	
		부모애착				1		
		학대경험				2		
		부양의식, 부양부담			1	2		
		가족관		1				
	또래 관계	또래유능성, 또래적응, 또래상호작용				2	7	
		또래애착, 또래괴롭힘				2		
		친구선택			1			
		놀이상호작용, 형태, 놀이성				2		
	기타 관계	치료관계				1	2	
		교사관계				1		
		소계	1	2	9	32	45	
개인의 변인	부모 양육 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신념, 양육방식, 양육스트레스				7	18	
		양육행동빈도, 진로관여, 사회정서적 투자			1	1		8
		성숙행동기대				1		
		의사소통유형			1			
	부모 특성	정서적특성, 불안, 스트레스수준			2	1	8	
		가치관				1		
		사회경제적 수준, 인구학적 특성				1		
		성장기 행복도				1		
		출산동기				1		
		응집성, 적응성				2		
	가족 특성	가족지지				1	3	
		소계	0	1	4	21	29	
합 계		5	6	33	95	143		

연구들은 심리적 적응능력과 일과적응, 학교 적응,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이로 인한 문제 행동, 폭력행동, 비행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간 변인은 개인간의 관계변인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성발달과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등이 포함된다. 사회성발달은 개인의 발달특성의 한 범주이기도 하지만 관계적 속성이 강하여 개인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개인간 변인 가운데서는 사회성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성발달 관련연구들은 사회적 유능감(능력), 대인관계성향, 리더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모자녀관계 관련연구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애착, 학대경험, 부양의식, 가족관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또래관계 관련연구들은 또래유능성과 적응능력, 친구선택, 놀이성(놀이상호작용)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의 변인은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환경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특성, 가족특성 등이 포함된다. 개인의 변인 가운데서는 부모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부모양육태도변인에는 양육효능감,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등의 태도관련변인과 양육행동빈도, 사회정서적 투자 등의 행동관련변인이 포함된다. 부모특성변인에는 양육태도 관련변인을 제외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 특성, 가치관, 인구학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외동여부와 이에 따른 종속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을 사용

해 살펴본 연구는 총 7편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으로 사용된 변인은 성별, 연령, 사회계층, 형제유무와 같은 인구학적 변인과 그 외에도 어머니의 출산동기, 친사회적 행동과 국적 등이 조절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매개변인을 사용한 연구는 2편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으로는 갈등해결전략과 성격5요인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2편의 연구에서는 외동여부가 종속변인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 이후 외동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관련된 연구였다.

또한 3편의 연구논문은 질적 자료만을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2편의 논문은 외동아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을, 나머지 1편의 연구는 가족화에서의 외동아와 형제아의 차이를 관찰한 연구였다.

4. 외동아관련 연구결과의 전반적 경향

외동아관련 연구내용의 전반적인 경향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외동아와 형제아집단간 발달특성 등의 차이나 외동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들 가운데 외동아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5편의 논문을 제외한 90편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외동아와 형제아 집단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는 연구결과는 외동아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긍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개인내적 변인, 개인간 변인, 개인의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외동아와 형제아 집단의 비교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차이가 있

표 6. 외동아관련 주요변인별 연구결과(중복측정)

구분	변인	차이 구분				
		차이 있음		차이 없음	비교불가	
		긍정적	부정적			
개인내 변인	신체 발달	운동능력	1			
		발달장애			3	2
		정신건강			1	
	인지 발달	지능, 인지능력, 다중지능		1	3	
		학업성취, 학업유능감	2	1		
		구어발달, 문해발달, 언어발달		1	3	
		창의성			2	
	정서 발달	정서(외로움, 걱정, 기분, 불안), 스트레스 수준	1	2	3	
		정서적 능력, 정서장애		2	2	
		자기조절, 자기관리능력	1	2		
		마음이해, 마음표현			2	
	자아 개념	자기애			1	
		자아정체감			1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1	1	2	2
	성격 특성	기질, 행동억제			1	1
		성격				4
	적응 능력	사회·심리적 적응		2	1	
		일과적응, 학교적응		1	1	
		가족적응성	1			
		스트레스 대처행동			1	
		문제행동, 비행, 폭력		1	3	
		도덕성, 효행동, 예절의식				2
	기타	모취업에 대한 태도, 진로타협, 성선택, 성역할			1	4
	소계		6	14	30	15

표 6. 외동아관련 주요변인별 연구결과(중복측정)

(계속)

구분	변인	차이 구분			
		차이 있음		차이 없음	비교불가
		긍정적	부정적		
개인간 요인	사회성 발달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능력		8	10
		친사회성		2	1
		대인관계성향, 갈등해결전략		1	1
		리더십		1	1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상호작용, 의사소통		1	1
		부모애착		1	
		학대경험		2	
		부양의식, 부양부담			1
		가족관			1
	또래 관계	또래유능성, 또래적응, 상호작용		2	
		또래애착, 또래괴롭힘		1	1
		친구선택			1
		놀이상호작용, 형태, 놀이성			1
	기타 관계	교사관계		1	
		치료관계		1	
	소계	3	18	16	6
개인의 요인	부모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1	5
		양육행동빈도, 진로관여, 사회정서적 투자		1	4
		성숙행동기대			1
	부모 특성	의사소통유형			1
		정서적특성, 불안, 스트레스수준		1	2
		가치관			1
		사회경제적 수준, 인구학적 특성			1
		성장기 행복도			1
		출산동기			1
		응집성, 적응성		1	1
	가족 특성	가족지지		1	
	소계	2	2	12	4
합 계		12	34	61	28

되 외동아의 긍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12건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는 3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도와 평균 등의 기술통계치만 제시되어 있어 비교가 불가능한 연구이거나 변인의 특성상 비교가 어려워 비교불가에 포함된 연구결과가 28건으로 나타났다.

개인내 변인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동아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14건, 긍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내 변인과는 달리 개인간 변인에서는 외동아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16건으로 나타났으며, 외동아의 긍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간 요인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자녀관계를 제외한 사회성발달과 또래관계와 기타관계에서 모두 외동아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변인에서는 개인내 변인과 유사하게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동아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긍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는 각각 2건씩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절변인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연령에 따른 사회성발달, 국적에 따른 양육태도, 친사회적 행동수준에 따른 다중지능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매개변인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성격의 5요인 가운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출생순위

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형제유무는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동아만을 대상으로 외동아의 사회적 능력을 관찰한 질적 연구들에서는 주도성과 같은 긍정적인 속성과 자기중심성 등의 부정적인 속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외동아관련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연구의 발표시기에서 1980년대까지는 외동아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제한정책을 장려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외동아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으며, 외동아연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자녀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자녀가족이 증가하면서 외동아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외동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1973년부터 이른바 계획생육(計劃生育)정책을 시행하면서 대도시에서는 90% 이상이 외동아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송미, 2001). 이러한 정책의 실행으로 인구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외동아 증가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홍월, 2004). 그 중에서도 외동아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이기적 행동은 ‘소황제증

후군'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외동아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Chen, 199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심각한 저출산율로 인해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동아의 발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먼저 연구유형별로는 지금까지 외동아관련 국내연구는 주로 질문지법을 통해 외동아와 형제아의 발달특성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외동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외동아관련 연구들의 대다수가 외동경험으로 인한 발달문제를 설명하는 결핍모델과 자원회석모델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상대적으로 부모자녀관계모델이나 독자성모델의 검증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외동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대상과 정보제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동아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외동아와 형제아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라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연령대가 유아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외동아의 발달에서 연령에 따른 상이한 효과를 고려해야한다는 Falbo(1982)의 주장이나 유아기에는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지능이 높으나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되면 점차 역전하게 되어 성인 초기가 되면 외동아보다 형제아의 지능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Zajonc과 Markus(1975)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에 상당한 문제

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이 유아기에 편중된 결과, 정보제공자는 연구대상 자신이 아닌 부모 또는 교사이거나 복수응답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타인의 시각에서 본 외동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외동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다. Jefferson과 동료들(1998)은 타인보고식 연구에 비해 자기보고식 연구에서는 외동아와 형제아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타인보고식 자료에서는 차이가 보다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타인보고식 자료에서는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더욱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동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외동아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관찰, 면접, 실험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용된 자료분석방법에서는 외동아와 형제아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차이검증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외동여부가 특정 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자료분석방법상의 문제는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부모자녀관계 모델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Falbo와 Polit(1986)는 외동아와 형제아의 발달특성의 차이는 실제 형제유무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나 양육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Adler(1928)의 심리적 출생순위나 가족구조의 개념,

Suloway(1996)의 기능적 출생순위의 개념도 바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외동아와 형제아 집단의 발달특성을 비교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애착유형 등 외동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내용에서 외동아관련 조사연구들은 대부분 발달특성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외동아와 형제아집단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관련변인 가운데 개인내 변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간 변인과 개인외 변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내 변인 중에서는 정서발달과 인지발달, 적응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는 형제경험이 이들 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이론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as와 Babu(2004)는 TOM(theory of mind)과제의 습득에 형제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 정서발달에서 외동아의 부정적인 속성을 강조하였다. 외동아의 인지발달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세계 유명인들 가운데 외동아 비율이 46%에 달하며 노벨수상자들은 무려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도희, 윤지민, 2009, 재인용)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 Belmont와 Marolla(1973)는 가족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지능은 낮아지며,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지능은 높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의 크기 증가는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사용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자원희석모델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결핍모델의 관점도 지지하는 것이다. 결핍모델에서

는 첫째아는 부모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성인언어에 보다 많이 노출되고, 가장 지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뿐 아니라 어린 동생을 가르치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출생순위가 늦어질수록 이러한 점에서 결핍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Zajonc & Markus, 1975). 따라서 외동아는 첫째아와 마찬가지로 지지적인 환경을 경험하지만 어린 동생을 가르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적 발달에서 결손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Tavares 등(2004)은 외동아가 첫째아나 형제아보다 높은 학업적 성취를 이루지만 사회적 행동이나 부모 및 또래 관계, 흡연 및 약물남용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사용한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외동아집단은 형제아집단보다 높은 신경증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을 위해 적절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Gao, Kong, Gan, 2006), 이와는 달리 Joby(1998)는 버릇없고 외롭다는 외동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개인간 변인으로는 사회성발달과 부모자녀 관계 및 또래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형제간 상호작용이 사회정서적 기술을 학습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사회성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형제자매는 나이나 갈등협상,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주므로 관계협상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며, 그 결과, 외동아들은 대부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다

(Minuchin, 1974). 또한 이들은 특히 집단따돌림이 일어나는 학교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을 갖고, 자신을 또래에게 맞춤으로써 관계를 조절해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성인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이나 착한 아이가 되고자하는 동기로 인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Berne (1961)이 교류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로운 아동자아가 배제되고 순응적인 아동자아가 지나치게 발달한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경직된 경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외동아들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도 문제는 혼자 해결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이며, 이는 외동아를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무시나 지나친 간섭과도 관련이 있다(Sorensen, 2008).

개인의 변인과 관련된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특성, 가족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외동아의 발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론적 관점에 많은 연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Falbo (1984)는 정신건강에서 외동아와 비외동아동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부모의 과보호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사한 관점에서 Pickhardt (1997)도 외동아의 부모는 지나치게 외동아에게 집착함으로써 분리가 매우 고통스럽고, 부모자녀 간에 지극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관계가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것이 외동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Feldman(1981)의 가족로맨스의 개념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외동아와 부모 간에 안정애착을 형성하

기만 한다면 형제자매가 없음으로 인해 발달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부모양육태도 관련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외동아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외동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질적 연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외동아 경험의 독자성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외동아관련 연구결과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외동아와 형제아집단의 비교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동아와 형제아간에 발달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외동아가 더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며, 자아존중감이 더 높고, 사회적 기술이 보다 뛰어나고, 사교적이며, 정신건강상 문제를 덜 보인다는 Falbo와 Polit(1986)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Laybourn(1994)도 버릇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외동아에 대한 대중적인 편견의 힘을 인정했지만, 이에 관한 증거는 매우 적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의 외동아관련 연구에서도 개인내 변인에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대근육발달에서 외동아가 불리하고(김재우, 손경환, 2009), 정신장애에서 만이와 외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최형관, 홍강의, 1982), 이는 부모가 갖는 지나친 기대나 과잉보호로 인한 정신적 부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지능력에

서도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우세하였으나 외동아를 포함하여 첫째로 태어난 아동이 학업성취에서 뛰어나지만 만이와 외동을 구분하여 비교했을 경우에는 학업유능감과 자기관리유능감에서 만이가 외동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자, 2005). 이는 책임감이 강조되는 만이와 응석받이의 특성이 강조되는 외동이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정서발달에서는 전반적인 정서발달이나 마음이 해 및 표현능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긍정적 정서표현능력에서는 외동아가 불리하며(김광웅, 정은혜, 2003), 외동아들이 형제아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김현지, 성영혜, 2003), 정서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균, 장경준, 홍강의, 1990). 또한 스트레스 수준에서도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희선, 1994), 이는 형제와의 상호작용경험의 결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응능력도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우세하지만 가족적응성에서는 외동아가 유리한 반면(정연호, 류점숙, 신효식, 2005),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외동아가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진, 1999). 이러한 적응상의 차이는 상호작용과정에서 가족 내에서는 외동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지만 학교상황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간 변인에서도 사회성발달, 또래상호작용 등에서 외동아와 형제아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난실, 2004; 김숙경, 1989; 도미향, 윤지영, 2004; 박성연, 송나리, 1993)가 다수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기존의 외동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성발달의 하위영역 가운데 자율성에서 외동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숙경, 1989), 사회적 유능성도 낮게 나타났다(김윤희, 강민주, 2010). 특히 또래관계에서는 모든 연구결과에서 외동아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경, 2010; 박화윤, 안라리, 2005; 이주옥, 2009). 부모자녀간 애착에서는 독자나 만이의 애착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모애착에서는 차이가 없는 반면, 부애착에서는 외동아가 오히려 형제아보다 아버지와 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매리, 이규미, 2006). 학대경험에서는 외동아가 정서적 학대를 더 빈번하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여대철, 장조현, 2005), 외동아보다 형제아집단에서 아동과 치료자 모두 치료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진영, 김광웅, 조유진, 2006).

개인의 변인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우세하였으나 외동아의 경우 부모는 보다 적극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이기숙, 박은혜, 김희진, 김현정, 2004) 양육스트레스는 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손수민, 2010). 가족지지에서는 만이와 외동이 보다 가족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김상순, 이가연, 백경순, 1994).

또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 가운데 외동아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긍정적인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에 비해 많았다는 사실은 적어도 외동아의 발달에서 나타나 는 부정적인 속성을 사회적 편견으로 간과할

수만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하위변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개인내 변인이나 개인외 변인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많았으나 개인간 변인에서는 외동아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간 변인이나 개인외 변인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관계특성을 나타내는 개인간 변인에서 이처럼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사회적 상호작용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외동아가 대인관계에 부적응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ueller와 Vandell(1995)은 순위 형제가 있는 아동은 또래에 비해 보다 사회적으로 반응적인데, 그 이유는 가정내에서의 형제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 경험이 또래관계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절변인을 사용한 연구에서 외동아에 대한 사회적 지도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문은식, 차옥순, 2009), 국적별로 중국 어머니에 비해 한국어머니가 한자녀아동을 더 과보호한다는 연구결과(서안리, 정영숙, 2009), 친사회적 행동수준에 따라 외동아의 다중지능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서영민, 김진경, 2009), 성격의 5요인 가운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출생순위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안도희, 윤지민, 2009), 형제유무가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윤희, 강민주, 2010) 등은 외동아의 사회적 능력 함양과 외동아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질적 연구에서 외동아는 경험의 독특성으로

인해 부정적 특성과 동시에 긍정적 특성도 동시에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외동아의 특성과 유사하다. Pitkeathley와 Emerson(1994)은 60명의 외동아를 대상으로 외동아 경험의 긍정적, 부정적 차원을 떠나 외동아들이 보이는 고유한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면접연구에서 외동아 경험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다고 하였다. 외동아들은 외적으로는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불안정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어린 시절 부모의 지나친 관심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동아들은 표면상으로는 어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제자매경험의 결손으로 인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감정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가 적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외동아관련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발표현황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위논문 가운데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국내 외동아연구를 모두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외동아관련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추후 연구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외동아관련 연구들은 대다수가 결핍모델과 자원회식모델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독자성모델

이나 부모자녀관계모델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동아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보여주는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외동아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부모자녀관계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동아들의 적응 유형은 부모자녀관계나 애착 등 다른 변인과의 관련이 있으므로 외동아집단을 하나의 범주로 형제아집단과 비교하기보다는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을 매개변수로 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연구논문이 1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더욱더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리고 양적 연구뿐 아니라 외동아 경험의 독특성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외동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발달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동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동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외동아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외동아가 응석받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서 및 행동장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동아의 분리문제가 가족로맨스에 의해 심화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외동아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외동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자녀를 응석받이로 키우게 될까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더욱 엄하게 다루는 것도

문제시될 수 있다.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에 한자녀가족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외동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초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육지원을 위한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외동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간 변인에서 외동아가 불리하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 출생초기에 형제자매가 없음으로 인해 사회정서적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이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래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친사회적인 행동모델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또래관계에 대한 모든 국내 외동아관련 연구에서 외동아의 부정적인 발달특성을 보고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집단따돌림의 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외동아를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홍월 (2004). 중국 외동아의 대인관계 인식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정은혜 (2003).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3(1), 5-42.
- 김난실 (2004). 만2세반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 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순, 이가연, 백경순 (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경북의대지*, 35(3), 311-319.
- 김숙경 (1989).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10(1), 43-63.
- 김윤희, 강민주 (2010). 사회적 유능성에 형제 유무와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1(3), 199-214.
- 김재우, 손경환 (2009). 유아의 출생순위, 형제 유무와 운동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1), 233-253.
- 김현경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 및 교사관계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3(1), 88-104.
- 김현자 (2005). 다중지능과 가정변인이 초등학교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방과후아동지도연구*, 2(2), 135-155.
- 김현지, 성영혜 (2003).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의 외로움 및 대인관계 성향. *아동연구*, 16(2), 1-27.
- 김효진 (1999). 청소년의 출생순위와 성에 따른 자아개념, 학교생활 적응능력 및 사회적 능력. *이화교육논총*, 10(2), 105-113.
- 도미향, 윤지영 (2004). 외동이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5(3), 75-85.
- 문은식, 차옥순 (2009).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8(1), 67-86.
- 박성연, 송나리 (1993).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4(1), 91-107.
- 박화윤, 안라리 (2005). 유아의 형제관계의 질과 또래유능성 및 정서능력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1), 91-108.
- 배매리, 이규미 (2006). 청소년 외동아, 형제아의 부, 모, 또래애착과 자기애. *한국가족복지학*, 11(1), 113-130.
- 서안리, 정영숙 (2009).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49-68.
- 서영민, 김진경 (2009). 외동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다중지능, 부모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349-369.
- 손수민 (2010). 영아기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가정 및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4(4), 267-288.
- 안도희, 윤지민 (2009). 출생 순위와 성격 5요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3(3), 623-643.
- 여대철, 장조현 (2005). 아동의 지위환경과 정서적 학대 및 불안과의 관계. *교육논총*, 25(1), 341-362.
- 유구종, 조희정 (2010).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특성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137-160.
- 이기숙, 박은혜, 김희진, 김현정 (2004). 우리나라 유아의 하루일과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3), 163-188.
- 이정균, 장경준, 홍강의 (1990). 국민학교아동

- 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생물·정신사회학적 연구 (I).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 94-107.
- 이주옥 (2009).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육아지원연구, 4(1), 115-132.
- 이희선 (1994). 아동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광, 91, 23-40.
- 임진영, 김광웅, 조유진 (2006). 놀이치료 내담자의 상담 전 특성이 아동-치료자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행동장애연구, 22(1), 127-151.
- 정연호, 류점숙, 신효식 (200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145-158.
- 최송미 (2001). 중국 외동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연세교육연구, 14(1), 173-196.
- 최형관, 홍강의 (1982). 정신병동에 입원한 중학생환자의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21(4), 565-572.
- Alder, A. (1928)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child. *Children*, 3, 14-52.
- Bank, S. P., & Kahn, M. D. (1975). Sister-hood brother-hood is powerful: Sibling subsystems and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14, 317-19.
- Barrett, L., Dunbar, R., & Lycett, J. (2002). *Human evolutionary psycholo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elmont, L., & Marolla, F. A. (1973). Birth order, family size and intelligence. *Science*, 182, 1096-1101.
- Berne, E. (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A systematic individual and social psychiatry*. New York: Grove Press.
- Blake, J. (1981). Family size and the quality of children. *Demography*, 18(4), 421-442.
- Byrd, B., De Rosa, A. & Craig, S. (1993). The adult who is an only child. *Psychological Reports*, 73, 171-177.
- Campbell, L., White, J., & Stewart, A. (199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birth order to actual birth order. *Individual Psychology*, 47, 380-391.
- Chen, B. (1994). A little emperor: One-child family. *Integration*, 39, 27.
- Das, S. & Babu, N. (2004) Children's acquisition of theory of mind: The role of presence vs. absence of sibling. *Psychological Studies*, 9, 36-44.
- Downey, D. B. (2001). Number of siblings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The resource dilution explanation. *American Psychologist*, 56(6/7), 497-504.
- Falbo, T. (1982). The one-child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ssues and result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3, 212-215.
- Falbo, T. (1984). Only child: A review. In T. Falbo(Ed.), *The single-child family*. New York: Guilford.
- Falbo, T., & Cooper, C. R. (1980). Young children's time and intellectual abilit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299-300.
- Falbo, T., & Polit, D. (1986).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 child literature: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 100(2), 176-89.
- Feldman, G. (1981). Three's company: Family therapy with only-child famil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43-6.
- Gao, C., Kong, S., & Gan, J. (20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ity and capability of only-child recruits. *Sichuan Mental Health*, 19(1), 1-2.
- Growth, M. (2001). The body I am: Lived body and existential change. In E. Spinelli & S. Marshall (Eds.), *Embodied theories*(pp.81-97). London: Continuum.
- Jefferson, Jr., T., Herbst, J. H., & McCrae, R. R. (1998). Associations between birth order and personality traits: Evidence from self-reports and observer rat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 498-509.
- Joby, E. C. (1998). The only child - Lonely and spoiled? *Social Welfare*, 43(3), 28-29.
- Klein, M. (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London: Horgarth.
- Laybourn, A. (1994). *Only child. Myths and reality*. London: TSO.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ueller, E. C., & Vandell, D. L. (1995). Peer play and friendships during the first two years. In H. C. Foot, A. J. Chapman, & J. R. Smith (Ed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pp.181-208).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Neaubauer, P. B. (1982). Rivalry, envy and jealousy.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37, 121-142.
- Neaubauer, P. B. (1983). The importance of the sibling experi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38, 325-336.
- Pickhardt, C. E. (1997). *Keys to parenting the only child*. New York: Barrons.
- Pitkeathley, J., & Emerson, D. (1994). *Only child. How to survive being one*. London: Souvenir Press.
- Roberts, L., & White-Blanton, P. (2001). "I always knew mom and dad loved me best": Experiences of only children.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7(2), 125-40.
- Rosenberg, B. G., & Hyde, J. S. (1993). The only child: Is there only one kind of onl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2), 269-282.
- Shulman, B. H., & Mosak, H. H. (1977). Birth order and ordinal position: Two Adlerian views.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3, 114-121.
- Sorensen, B. (2006). Not special but different: The only child experiences. *Self & Society*, 33(6), 41-46.
- Sorensen, B. (2008). *Only-child experience and adulthoo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ulloway, F. J. (1996). *Born to rebel: Birth order, family dynamics and creative lives*. New York: Pantheon.
- Tavares, M. B., Fuchs, F. C., Diligenti, F., de Abreu, J. R. P., Rohde, L. A., & Fuchs, S. C. (2004).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only child vs first-born and children with siblings. *Revista Brasileira de Psiquiatria*, 26(1), 17-23.

- Winnicott, D. W. (1957). *Mother and child A primer of first relationships*. New York: Basic.
- Zajonc, R. B., & Markus, G. (1975).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82, 74-88.

1차 원고접수 : 2011. 10. 8
수정원고접수 : 2011. 11. 16
최종게재결정 : 2011. 11. 30

A Review of Only Child Studies in Korean Journals

SoonHwa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urrent trends in research on only child studies in Korean Journals. 112 studies published up until 2011 were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publication, methods, themes, and results.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only child phenomena increased considerably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th century. Most of the studies examined collected data using survey methods from preschool children and single informants as well as multiple informants were used to evaluate the measures. ANOVA, t-test, regression analyse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s of analysis. The most frequently used themes of only child studies were intra-personal themes. Moreover, research reporting no differences between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were the most commonly observed, with the exception of inter-personal themes.

Key words : only child, research trends, published articles, confluence model, resource dilution model